

농식품부·농협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상차림 품목 반값 할인 추진

- 농축산물 할인지원 지난해 대비 3배인 1,490억원으로 대폭 확대
- 농협도 291억원 추가 투입하여 하나로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할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하여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억 원보다 약 3배 늘어난 1,4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9월 3일부터 9월 23일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9월 30일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격 부담이 큰 한우·한돈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많이 활용되는 한우 등심·양지·국거리와 한돈 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 등에서 30~50%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도 291억 원(정부 지원액 등 포함 총 87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하나로마트, NH싱싱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을 추진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과일·한우·돈육·굴비 등 농축수산물과 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상차림 품목에 대해 최대 57% 할인하고, NH싱싱몰에서는 주요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이를 통해 추석 성수품과 상차림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할인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